

yes big @ hnmw . net

1. 제안배경

얼마전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으로 신문 지상이 떠들썩 했다. 어느 신문은 “나이가 보자면 아버지와 딸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 차 시중을 들었다고 그리 흥하게 보일 것도 없다”며 성폭행과 같은 파렴치한 행위도 아닌데 공개적인 서면사과와 전교조의 개입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언론은 이 사건 본질의 사소한 심부름을 빌미로 전교조와 기간제 여교사의 무리한 요구가 한 교장의 비극적 죽음을 부른 것이라고 호도하지만,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전근대적인 성차별이데올로기와 불안정화된 노동의 문제였다.

또한 두달여 전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에서 청소용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죽어서도 비정규직의 설움을 받았다. 최저임금을 겨우 받으며 지하철과 시민들을 위해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더러운 곳을 가장 깨끗하게 청소하던 이 여성노동자들의 빈소는 지하철 공사 직원들의 합동분향소를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빈소가 차려진 5일 동안 용역업체 사장의 달랑 5만원의 위로금이 고작이었을 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최옥란 열사가 돌아가신지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여성은 여전히 장애와 여성과 빈곤이라는 3중의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주여성노동자 역시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속에서 노동착취와 성폭력의 인권 유린속에서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2003년, 이 땅 여성들의 현실은 이러하다. 정부는 여성인력 활용에 초점을 맞춰 여성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여전히 임시직, 일용직, 파트타임직 등의 불안정 노동 일 뿐이다. 또한 여성고학력 인력의 실업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사례에도 그러하지만 성차별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지속적임에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뿐이다.

이에 2003년 다가오는 노동절에 여성이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외쳐봅시다. 저임금장시간의 노동속에 허덕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폭로하는 가운데, 성차별을 박살내고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는 해방의 그날을 앞당겨 봅시다.

▶ 주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주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여성노동권팀

▶ 일시 : 2003년 5월 1일 1시 마로니에 공원

▶ 결의대회

1) 비공식·비정규 여성노동자의 현실폭로와 여성권 확보를 위한 결의를 모아낸다.

- 여성의 성차별, 저임금 문제 폭로

2) 기간제 여교사, 청소용역, 비공식 부문, 학습지 등 발언 배치 (각각의 상황 폭로)

3) 장애 여성, 이주 여성의 현실에 대한 폭로

4) 학생 (노동의 문제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문제에 대한 제기)

5) 학생 단위의 울동, 노래개사한 것 따라 부르기

6) 결의문 채택

이런 의견 적극 수용해.